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7월 23일(금)
...(음력 6월 14일)..
Пятница
23 июля 2021г.
№ 28 (1194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8일(일)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가 열렸다. 한글 쓰기 마스터-클래스를 마치고.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배순신 기자 촬영)

7월 24일, 상업인의 날 기념 존경하는 상업분야 근로자 및 베테랑 여러분!

상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업은 사할린주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사할린 주민의 6분의 1이 종사하고 있으며 1인당 소매 판매는 극동지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에서는 상품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 매장들도 생겨나고 현대적 서비스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 형성망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 사회적 장점을 비롯해 현지 생산 상품 품목, 직거래 시장도 포함돼 있는 가운데 모든 식료품의 4분의 1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여건 속에서도 영업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으로 훌륭하게 대처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물품 부족이나 가격 상승을 막고 충분한 공급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상업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주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에 성공과 강건함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상업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 치료를 위해 쾌적한 조건 당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현재 코로나 19 감염으로 13명의 아동이 치료받고 있는 코르사코브 구역 중앙병원의 소아과 활동을 시찰했다.

주지사는 각 병동을 방문해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시설 여건을 자세히 살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환자 올가는 "아이가 감염된 후 나도 병에 걸렸다. 나는 폐렴 진단을 받았고, 딸은 코로나 19 감염 진단을 받았다. 지금 함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의 대우는 훌륭하다. 하지만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곧 퇴원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아동이 코로나 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영아들까지 위험군에 속하게 됐다.

코르사코브 구역 중앙병원의 소아과에는 13명의 어린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9세 이상이고 4세의 유아도 있다.

"현재 회진상 어린 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중증은 없고 모두가 중간 단계의 증상과 경증이다. 소아과 병동은 최근에 개원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을 가진 어린 환자를 처음 만나면서 단지 숙련하고 있다."고 정 안드레이 소아과 의사가 말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병원의 의료진과 병원의 개인 보호 물품과 장비, 의약품 확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의료진은 필요한 모든 것이 적시에 병원에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개인적으로는 이 병원은 치료를 위한 좋은 여건이 확보돼 있다고 확인한다. 모든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주지사가 말했다. 주 보건부는 사할린 지역은 코로나 19 감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과 장비가 완벽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레리 리마렌코의 직접적인 시찰로 인공호흡기 사용 시 필요한 연속 산소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할린 주정부 정보정책국 자료에서)

단신

제32회 도쿄 올림픽 개최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도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가운데 7월 23일(금) 도쿄 신주쿠의 국립 경기장에서 개막된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기는 역사상 최초 무관중 올림픽대회로 진행된다.

경기종목 33개 종목과 339개 세부종목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선수들이 경쟁하게 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농업 실태조사 실시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농업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역 실태 조사는 이 지역의 모든 농업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농산업 기관, 농장 경영, 개인 농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사할린 통계청에 제출해야 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협동 원예업, 개인 자작농가 실태조사는 조사자가 조사하며

농산업 생산자들은 사할린 통계청 사이트에서 이메일로 조사서 질문에 답하여 전송할 수 있다. 설문에는 재배 종목에 따른 경작 면적, 다년생 과수 재배 면적, 가금류 농장 개체수 등 질문이 주어진다.

2022년 말까지 1,000개의 전기 충전소 설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올 연말까지는 사할린과 쿠릴에 500개소의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2022년 말까지 남은 500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사할린주에는 22개소의 전기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20개소, 포로나이스크에 2개소가 가동되고 있다.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사할린주 정부가 7월 21일 기준 코로나 19 현황을 발표했다.

1,559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942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사망자는 총 99명이다. 현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110개이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9명이다.

일일 백신 접종자는 1,510명으로 총 138,344명이 접종을 받았다.

집단면역 지수는 45%이고, 백신은 26,249 회분이 남아있다.

현재,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완치자 약 30,000명이 항체를 지니고 있다.

사할린주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58,732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고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60%가 집단면역이 되어야 한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문해운 사업인과의 인터뷰

한국어 교재 출간과 다양한 사업 활동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다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 모스크바에 계시는 문해운 씨를 알게 되었다. 2001년에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국립기술대학의 교재로 '한러 단어 익히기'를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새고려신문에도 기사가 게재되었었고 문해운 씨가 사할린 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배순신 기자는 문해운 씨에게 인터뷰를 부탁했다.

-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느 대학을 졸업하시고 무엇을 전공하셨는지요? 부모님의 가족사도 궁금합니다.

- 먼저 저희 어르신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할아버지의 성함은 문성환 (고향은 밀양)이시며 젊었을 때 사할린에 돈벌이 하러 오셨고 광복 이후 국경이 닫히자 사할린에 남게 되었죠. 다들 아시는 사할린한인사조. 사할린에서 할머니(장기춘)와 사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농사일을 하셨고 할아버지의 경우는 사할린에 오시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시고 3개 국어를 할 줄 아셨고 박식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보내셨으며, 우리 동네의 대장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문규완)께서는 다양한 직업을 얻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셨고 어머니(장춘자)는 수석 회계사로 종사하셨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영주귀국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부근에 있는 노보알렉산드롭스크에서 태어나 사할린 삼육대 신학과(삼육대 외에 <시네르기야>대학 경영학과(모스크바), 플레하노브 경제대학 졸업. - 기자주.)를 졸업한 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에 코디네이터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준화 총영사님의 통역사로 활약한 적이 있었으며 극동기술대에서 한국어 원어민 강사(원어민이 아니었지만 한국교육원 한문수 원장의 추천으로 '원어민 강사'로서 공식 활동. - 기자주)로 근무하여 '한러 단어 익히기' 교재를 처음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서는 한국어 동시/순차 통번역 사업을 하고 있고 화장품과 가전제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 문 선생님께서 통역을 비롯해 영어 과외도 하시고, 교과서도 쓰시고 발명에 대한 특허도 갖고 계시고 체스 코칭도 하시고, 휘트니스 사범 등 여러 활동을 하시며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 말씀하신 전체 활동을 다 하면서 신제품 출시와 전문 네고시에 이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하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회프로젝트는 돈이 되지 않고 항상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자금을 벌어서 관련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하여 제 수입이 많이 절감되어서 영어/한국어 튜터링이나 심리학 코칭이나 대학 특강이나 다양한 트레이닝을 부업으로 하게 되어 수익 좀 인상되었네요. 그래서 다각화는 특히 현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십 개 직업이 없어질 텐데 많은 직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련이 개방되어 한국에서 작은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큰손자로 우리말을 전

혀 못해서 창피하여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북한 책으로 알파벳을 익혔고 사할린 삼육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배웠어요. 사실은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저가 소련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우리말 만 할 줄 알았으며 러시아어를 전혀 못했다고 하시네요. 따라서 학생시절에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금방 배웠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왜냐면 문순에 고모 말씀에 의하면 훌륭한 저희 할아버지께서 집안에서 우리말만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결국은 독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한국어 보급에 큰 관심을 두고 있어요.

- 한국어 교과서, 교재와 사전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교과서의 특징도 궁금합니다.

- 사실은 교과서에 관련 얘기는 상당히 길어요. 의미론에 관련한 아이디어는 2000년 경에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기술대학에서 일할 때 생겼는데 모스크바로 이사가면서 교육이나 교재 쓰는 작업을 사실 포기하기로 했어요. 기회가 있어서 소련, 러시아에서 잘 알려진 발렌티나 드미트리예바 한국학 학자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제가 갖고 있던 의미론 관련 자료를 보여주었더니 그분이 '아직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문 선생이 동포니까 언젠가는 감이 잡힐 것이고, 해낼 수 있을거라고 하시며 '나중에 책을 내면 한 권 꼭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드디어 2019년에 한국어 (Южнокорейский язык) 교과서가 모스크바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 내는 용기는 사실 딸래미에게서 받았어요. 개가 '아빠, 의미론이 그렇게 중요하면 책을 내는 게 맞다.'고 힌트를 줬거든요. 딸래미가 얘기

하면 아빠는 거절을 못하잖아요. 책을 낼 때 큰 돈을 못 번다고 감안하고 책을 좀더 많이 팔기 위해 여러 SNS상 통해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홍보 내용을 보고 통번역을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책을 편찬한 후 모스크바에서 다시 한국어 통역을 하게 됐죠. 사실상 통역할 생각 없었거든요. 러시아 국영 회사나 정부나 영리기업들이 남긴 후기에 의하면 다들 매우 만족하시대요. 생각하면 책이 출판된 것과 요즘 인기 통역사가 된 것도 바로 제 사랑하는 딸 안나 덕분이네요.

제 한국어 교과서의 키포인트는 알파벳과 관련 신규 교수법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의미론을 처음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미론은 아는 사람만이 한국어를 깊이 알게 되며 한국어가 얼마나 수학적이면서 기술적인지 놀라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역과 관련 경험 기록도 수업 중간에 첨부했으니 많은 통역 초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중간중간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전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용난해용어'사전을 출판한 목적은 통역을 하다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또한 일반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경제학술어와 기술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유일한 포켓사전을 출시했습니다. 본 사전은 제가 하는 통역업 실상황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어를 쭉 외우면 됩니다. 상기 교과서나 사전 온라인 구매는 <https://wildberries.ru>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활동 중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어디에 두십니까?



- 현재 다양한 활동 중에서 신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각화를 좋아하고 다양한 직업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활동 중에서는 상품 발명 특허에 관심이 있습니다.

- 지금 하시는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현재 살고 있는 삶은 어학 면에서나 창의력 면에서 마음에 드는데 프로젝트 실행이 신속히 성사되지 않는 게 좀 그래요.

- 좋아하시는 명언이나 표현은 있습니까?

- 많이 있긴 있는데 바로 생각나는 것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 '안되는 것도 되게 하라',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물이 되리라, 즉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컵모양을 따라가고 물을 병에 부으면 물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 삶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일은요?

- 다양한 사업을 하여 목적을 달성해서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며, 취미는 무엇인지요?

- 제 취미는 사람을 사귀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노는 것도 즐기고 운동을 좋아해요. 최근 새로운 취미는 노래와 춤입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아하시는 일들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학생들, '시리우스' 교육센터에서 <대도전> 프로그램에 참가

사할린 학생들이 시리우스 교육 센터(소치에 소재)에서 <대도전>과학기술 기획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사할린주를 대표해 아델리나 마뉴로와, 알렉산드르 본다르, 진 니키타 3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학생들은 2019년-2020년, 2020년-2021년 학기에 <대도전> 지역 경연의 우승자들로서 전 러시아 원격 결승 단계의 시험들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교육 프로그램은 7월 5일부터 28일까지 시리우스 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64개 지역에서 435명의 영재 학생들이 참가한다.

시간별 그룹 교육 시 학생들은 생태농업에서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대두되는 12개 방면의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 산업, 상업 부문의 과제들은 <대도전>의 70개 이상의 협력자들이 세웠는데 이들은 러시아 대학들, 학술연구소, 국영기업, 대기업, 사회연합회의 지도자들이다.

사할린을 대표하는 진 니키타 학생은 '무충전식 배터리

의 무정전 전원 공급' 기획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 에너지'방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야쿠치야 출신의 과학 연구원의 지도 아래 사마라, 니즈니 노브고로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 연구하고 있다.

<대도전> 콘퍼런스는 7월 27일-28일에 열리는 가운데 각 팀들은 각자 활동의 결과들을 발표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참가 총결산으로 모든 참가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한다고 사할린주 교육품질 평가센터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участвуют в программе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в "Сириусе"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роходят обучение в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ект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Сириус" (Сочи). В числе участников — тро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елина Манюрова, Александр Бондарь и Никита Дин. Все они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в 2019-2020 и 2020-2021 учебных годах и успешно прошли испытания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и заключительного этап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ходит с 5 по 28 июля в центре "Сириус". Всего в ней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435 талантливых школьников из 64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о время смены школьники выполняют проекты по 12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иоритетным для научно-техноло-

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от агробιοтехнологий д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Научные, отраслевые, рыночные задачи поставили более 70 партнеров "Больших вызов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ведущие росси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нституты, госкорпорации,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Один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участник смены Никита Дин работает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овременная энергетика" над проектом "Источник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питания без аккумуляторных батарей". Над исследованием он трудится в команде вмес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смены из Самары,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из Якутии.

27-28 июля состоится конференция "Больших вызовов", на которой каждая команда представит результат своей работы. По итогам участия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여름 끝 무렵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군대'포럼 개최 예정

8월22일부터 28일까지 '푸쉬스틱' 간이 비행장과 '파트 리오트(애국)' 군-애국공원,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행사장에서 <2021 - 군대> 제7회 국제 군사기술포럼이 열린다. (3면에 계속)

사할린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사할린한인사와 민족 문화에 집중



사할린한인 청소년 역사캠프는 7년 전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 8월 초에 최초로 실시되었다. 그 동안 동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할린한인의 역사, 한국 문화와 전통 등을 익히는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 캠프를 해마다 열기로 한 가운데 주최 측과 후원에 변경이 좀 있더라도 청소년 캠프는 늘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작년부터 사할린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진행에 주관인청년회(회장 이 세르게이)가 동참하게 되었고 올해는 주 한인협회(박순옥 회장)와 주 한인청년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후원으로는 한국 재외동포재단, 사할린주 청년청, 주 한인협회 등이 나섰다. 이번 청소년 역사캠프는 지난 18일(일) 개막되어 25일(일)까지 6박7일간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후원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캠프 진행 기간도 늘릴 수 있었고, 참가 학생 수도 증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로 3박4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할린주 청년청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아 이 캠프를 <나라의 역사는 나의 역사다>라

는 표어 아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캠프에서 사할린한인사를 알고, 한민족 문화를 익히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많이 친해지고, 건강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라고 이번 캠프 지도자인 오 블라디미르 사할린한인청년회 임원이 말하였다.

사할린주의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12세-17세의 학생 28명은 일주일 동안 아나와 구역 타라나이 마을에 위치한 휴양소에서 지내며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있는 사할린한인 희생자 위령비, 사할린한인 이중징용된 광부 피해자비, 코르사코브의 망향의 탑, 포자르스크에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 등에도 참배하고, 사할린한인들의 과거사를 배우게 된다. 또한 이들은 한글 쓰기교실, 요리교실, 장구교실 등을 통해 한민족 문화 체험 시간을 갖고 민족정체성 되찾기를 시작했다.

항상 한인 청소년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전해주는 사할린한인 청소년역사캠프가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취재: 배순신 기자)

나의 일생의 섬, 사할린 [어머님의 추억]

백발이 될 때까지
잊지 못하고,
자주 꿈에 보며,
기억에 남은
신비로운 사할린섬.

어린 시절

저는 78년 전, 7월 23일 타타르 해협에 위치한 사할린섬 우글레고르스크시(옛날 애수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시는 19킬로미터의 바닷가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고, 오른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왼쪽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항상 맑고 신선한 공기와 바다 향기가 풍깁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전운한이며, 강원도 출신이시고, 어머니의 성함은 김정희, 고향은 함경북도 함흥입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수자라는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장녀이고 제 아래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어머니의 형제는 오남매고 아버지의 형제는 육형제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일제시대에 우글레고르스크시 제지공장에서 요리사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우글레고르스크시에는 매년 봄마다 외할아버지께서 심으신 벚꽃나무 두 그루가 아직도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를 뵈는 적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14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 가난했고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고 일하는 것이 비밀비재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어나 "학교 공책도 없구나! 어디에 글을 쓸까? 선생님은 또 책망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책을 살 돈도 없으니 빨리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아버지는 자신의 힘으로 성인이 되어서 러시아어를 배우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1년에 들어 갔을 때 제 옆에 앉아서 저와 함께 알파벳을 배우셨습니다.

우글레고르스크시에 집 근처에는 언덕과 숲이 위치해 있습니다. 맑은 날씨에 언덕에 올라가면 바다 건너편의 본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숲속 언덕에 올라가곤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버섯과 열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5월~6 월에는 고사리와 고비가 자라고, 작은 뫼이 숨을 수 있는 거대한 우엉도 자랐습니다.

온 가족이 자연이 준 선물을 거두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깨끗한 식물들이었습니다. 품



질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5 월에는 바닷가로 가면 우역(모이와)과 물고기가 파도에 밀려와 해변가에서 펄펄펄 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맨손으로 주어서, 양동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말립니다. 물고기를 말리는 장면은 정말 볼 만한 광경입니다. 그 시기에는 생선을 잡아 집집마다 건조시켰습니다. 그때 도시는 물고기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 생선 냄새는 생오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이 고기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방말로 '칠림'이라고 부르는 새우

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우리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았고, 그 후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 이사 가서 작은 단독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주소는 프레찌야 코플까야였습니다. 국경수비대원들이 선사한 '썩'이라는 독일 셰퍼드 개가 집 마당을 지켰습니다. 텃밭이 있어서 양배추, 감자, 당근 및 모든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보통 어머니께서는 밭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프레찌야 코플까야 거리에는 많은 러시아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 지역에서 유일한 조선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저와 같이 놀던 러시아 아이들은 나에게 러시아 이름으로 '나타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이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같이 놀면서 '수자'라는 이름을 '수지야(판사)'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구인 리디아 베틀루즈스카야를 아직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해 어느 봄날, 옆집 러시아 아주머니가 염색한 달걀과 직접 구운 굴리치를 가지고 와서 부활절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부활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파란, 초록, 노란, 빨간 색으로 염색한 달걀을 보았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예쁜 계란을 손에 쥐고, 아까워서 보기만 하고 먹지도 않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호 계속)

문산에서 어머니의 추억 이야기를 듣고
딸 이 잔나 적었음
2021년 7월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6년에 걸쳐 진행돼온 '군대' 포럼은 군 장비와 기술의 선두적 전람회를 중 하나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 대표성과 전시품이 진열된 전람회 조직 및 방산업체의 수, 사업 프로그램 행사량과 다른 여러 표준에 따라 그 높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의 전람회 행사장들에서는 포럼 방문객들에게 현대적 전투기술의 유형과 종합 통신 장비, 최신 군복 및 군인과 다른 군 체계 대표자들을 위한 방탄복의 용법들이 소개된다.

현대적 군 장비 및 군사 기술 전시와 동시에 포럼 관람객들에게 문화적 오락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사할린 창작 예술단의 공연과 스포츠 행사, '정찰병의 오솔길' 엑스트림 탈출 실험을 위한 코스가 조성된다. 문화·역사 구역에서는 누구나 '유격대 마을'에 가볼 수 있으며, 대조국전쟁 시기의 무기들도 손으로 잡아보고, 전쟁시절 다양한 군 장비에 올라 운전대를 잡아볼 수도 있다고 동부군관구가 밝혔다.

В конце ле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йдет форум "Армия"

С 22 по 28 августа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парке "Патриот", а также выставочных

площадках в Курильск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пройдет V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ий форум "Армия-2021".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шести лет форум "Армия" подтверждает статус одной из ведущих вы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и техники, о че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его стабильно высокие показател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у, количеству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экспонент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экспонатов, числу мероприятий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и многим другим критериям.

На выставочных площадк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гости форума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образцами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комплексами связи, новейшим обмундированием и средствами бронезащиты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Помимо показа современ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зрителям форум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ыступление творческих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ут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Тропа разведчика" с трасс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забега.

В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й зоне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может побывать в "Партизанской деревне", поддержать в руках оружие времё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посидеть за рулём различной техник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сообщает ВВО(Восточный военный округ).

'문학의 황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7월 17일 '문학의 황혼' 창작 모임에 사할린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손님은 러시아 작가연맹의 회원이자 사할

린의 시인인 나콜라이 타라소브였다.

'문학의 황혼' 모임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를 주제로 사할린 일반 과학도서관 소공원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조성했다.

도입에서는 참석자들에게 20세기 초 몇몇 작가들과 시인 및 모더니즘의 경향을 소개로 시작했다.

니콜라이 타라소브는 이 행사의 주요 초청 손님으로서 처음이 아닌 가운데 이번에 그는 러시아의 문예이론가인 블라디슬라프 네도쉬빈의 서적들을 발표했다.

'리라' 문학협회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의 독서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Литературные сумерки" пров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7 июля сахалинцы посетили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гостем которого стал островной поэт,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Николай Тарасов.

"Литературные сумерки", посвящённые Серебряному веку, организовали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в сквере. Вступление началось со знакомства гостей с направлениями модернизма, несколькими писателями и поэтами начала XX века.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главным госте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овится Николай Тарасов, который в этот раз представил книги россий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а Владислава Недошикина.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Лири" и волонтеры центра чтения СахОУНБ.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осковский опыт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Слева направо: Виктория Чжи, Пак Чун Вон, Татьяна Ли, Юлия Тен,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Ли Сок Пэ.

Фото: Артем Бажора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Культурный опыт в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й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е» для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Он проводился впервые с целью поделиться жизненным опыто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оздавших такие семьи.

Свидетельства номинантам вручил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Ли Сок Пэ.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стала москвичк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экип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Сонсудо» в Москве Татьяна Ли:

«Рада был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и поделиться рассказом о своей семье. Благодаря Посо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и за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риз! Считаю, что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особенно важны, т.к. у нас мен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грузиться в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обменяться личным опытом. Хотелось бы побольше разнообразных конкурсов и встреч в будущем, которые бы помогли гармони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ю и сближению культур в наших семьях.

Моя история про то, как мы навещали родителей мужа в Корею. Были трудности из-за различий в языке, пище, культуре. До брака муж говорил моей маме про себя, что «ест всё, кроме камней», но оказалось, что это касалось только корейской еды. Наша семья любит и русскую, и корейскую пищу. Борщ с рисом, оливье с твенджан-тиге (된장찌개) для нас уже привычно».

Второе место отдано проживающему много лет в Москве южно-

корейскому журналисту Пак Чун Вону, недавно избранному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ссоциации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в Москве. Его эссе — рассказ про встречу с супругой 30 лет назад, история детей, которые выросли в атмосфер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остижениями дочерей: учёбой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м. Баумана одной из них и победой другой в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спортивным танцам в Англии в 2016 году — у родителей скромные биографии. Поэтому с супругой бесконечно радуемся и гордимся дочерьми!»

Лауреата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также москвички.

Юлия Тен, художник:

«В своём эссе рассказала историю про своего отца, пережившего сказочную историю второго рождения в Корею после инсульта. Отец радуется жизни благодаря врачам, окружающей его атмосфере, людям и медицинскому чуду».

Виктория Чжи, бакалавр по землеустройству:

«Моя история о том, как встретила будущего муж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в Хабаровске, а также эпизоды жизни, связанные с воспитанием детей».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ачала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амного раньше старшей дочки, она схватывает язык намного быстрее,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и у меня появляется стимул к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этому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продолжила изучение языка через ZOOM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ИА РУСКОР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олодежном форуме

С 7 по 11 июля в Москве проходил IV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THE POWER OF TODAY 2021". Организатором форума стала АНО "Молодё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в Москве" (директор Пай Павел).

В эпоху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перехода мира в онлайн формат необходимо следить за развитием циф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чтобы бы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и. На форуме было получено понимание, как не отставать от изменений в мире и как грамотно внедрить онлайн формат в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а также благодаря опыту спикер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найти актуальные решения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преодоления последствий кризиса и адапт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Форум проходил в формате он-офф лайн. Региональную молодеж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тавляли Ким Александр и Пе Жанет. Среди спикеров форума — Светлана Юн, кандидат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Samsung; Анна Зайцева, основатель школы TargetGirl, преподаватель МГТУ им. Н.Э. Баумана и РГТ (МИИТ), создатель блога Targetgirl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 Для меня форум — это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лекции, воркшопы, тимбилдинги. Это несомненно новый опыт, новые знания, которые уже готова воплощать в работе и, конечно, новые друзья,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участница форума от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Жанет Пе.

— Форум для меня не первый опыт участия в подобных проектах, но для себя я получила знания, которые станут хорошей базой для развития новых форм работы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пример, полученный опыт от спикеров об эффективных формах делового нетворкинга. Мы не только учились сами, но и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 опытом в разработке проектов от идеи до воплощ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Ким.

Поездка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форум состоялась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РООСК,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НДР признала нехватку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первые признала нехватку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акцины от COVID-19 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оклад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КНДР 13 июля на Полит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проходившем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од эгидой ООН. Традиционно доклады на этой встрече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в виде Доброволь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зора, в котором кажд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ценивает собственный прогресс по достижению целей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транами-членами ООН с 2015 года, однак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ла свой обзор впервые.

Согласно докладу, КНДР не смогла достичь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7 млн тонн зерна. При этом мин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пришёлся на 2018 год, когда было произведено всего 4 млн 950 тыс тонн зерна. В обзоре также говорится об острой нехватке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ыработка которой сократилась как в общем объёме, так и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засуха 2016 года оказала нега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её обще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 докладе перечисляются также такие проблемы как неподтверждённые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данные о смерт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з-за проблем с питьевой водой и санитарными условиями, нехватка медицинских персонала,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редме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7 июл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ОН опубликовала прогноз,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производство зерна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но составить в КНДР 5 млн 600 тыс. тонн.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является средним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и предполагает импорт 1 млн 100 тонн зерна,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достаточ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продуктов.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если Пхеньян не импортиру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или не получит его в вид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то уже к августу-октябрю этого года жители КНДР могут столкнуться с его нехваткой. В докладе организации ООН также говорилось, что в период с 2018 по 2020 год каждый четвёртый жител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спытывал нехватку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РК будет создан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 кос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В РК будет создан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который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ой в области освоения космос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0 ию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еул активизирует свою косм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запуск перв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ракеты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октябрь. Новый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космосом, чтобы предложить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итики страны в области освоения космос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работе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эксперты из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астрономии и Агентства обор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14 спутников, которые разместят на низкой околоземной орбит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создания сети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 с целью подготовки к внедрению технологии 6G и тестирования автономных систем управления морским движением.

В Ташкенте установят памятник королю Сэчжону Великому

Памятник королю Сэчжону Великом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торого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корейск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хангиль,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в Ташкенте, столице Узбекистана,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вух стра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подписанный 15 ию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очхо-гу в Сеуле и Мирабадского района Ташкен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заимную установку памятников исторической личности из другой страны. Памятник королю Сэчжону Великому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рядом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К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сеу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Сочхо-гу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 памятник узбекскому поэту и политическому деятелю XV века Алишеру Навои. Подписанный меморандум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же обмен делегациями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Новая песня BTS –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Billboard Hot 100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добавила ещё один пункт в свой обширный список достижений. Новая англоязычная песня Permission to Dance сразу после выхода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Billboard Hot 100, сместив на седьмое место предыдущий хит группы под названием Butter, который удерживал лидерство в чарте в течение рекордных семи недель подряд. Permission to Dance - пятая по счёту песня BTS, которая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после Dynamite, Life Goes On, Butter и ремикса песн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сполнителя Джейсона Деруло и новозеландского продюсера Jawsh 685 под названием Savage Love. Permission to Dance - второй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группы с британским певцом и автором песен Эдом Ширан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исполнителям потребовалось чуть более 10 месяцев, чтобы пять их хитов достигли первого места в чарте.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они уступают лишь Майклу Джексону, который сделал это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в 1987-88 годах. (RKL)

Всеросси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возьмет старт в Холмске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впервые примет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Эксперты из Москвы, Екатеринбург, Самары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могут молодежи из Холмска разработать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они смогут реализовать в родном районе.

Молодежный форум в Холмск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под девизом «Начни с малого» с 21 по 25 июля. Он соберет около 100 участников, экспертов, волонтеров, активист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Как отмеч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водить мероприятие столь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сложных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 непростая задача. Сегодня сделано все, чтобы требова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соблюдались как участниками, так 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ЦР-тесты, справки о наличии антител и сертификаты о вакцинации, санитайзеры во всех помещениях, наличие масок – обяза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лощадки. К тому же программа скорректирова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форумчан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небольших группах и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йдет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 Мы хотим, чтобы местная молодежь развивалась, получала новые навыки и компетенции. За ней – наше будущее.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сегодня молодые люди все больше выбирают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крупные города. Конечно, это проблема. Но если у нас будут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ивать свой город, свои личные качества, то я уверен, что многие останутся здесь, – отметил мэр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хорошая традиция проведен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форумов,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стали основой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ытия. Форум – это инструмент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й повестки, получени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от молодежи, апробации новых методов работы. Для нас важно, чтобы ребята из районов были причастны этому процессу. Холмск выбран не случайно. Глава района поним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зменений в работе с молодежью. Ведь она остается там, где в нее вкладываются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 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Среди приглашенных спикеров на форуме опытные тренеры и эксперты по пяти направлениям:

1.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2. Туризм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3.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4. Социально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5. Личностный рост.

Форумчан ждут не только занятия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но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дела – участники обогородят одну из опорных стен Холмска, проведут экологическую акцию, разработают экскурсионный маршрут по портовому городу.

Завершится мероприятие ярмаркой инициатив, гд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иде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города, другим активистам и специалиста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чтобы заручиться их поддержкой.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до конца года установ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500 электрозаправок

Еще столько же комплексов должно появиться в области до конца 2022 года. Выполнение этой задачи поручено областному министру энергетики Михаилу Гузенко.

– Мы взяли курс на улучш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островах. Одно из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этой работы –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лектротранспорта. Такой вид авто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воздух в наших городах значительно чище. Чтобы жители активнее приобретали технику, нужно развивать заряд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едь принимая решение о покупке электромобиля, человек руководствуе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наличием рядом с домом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ановили 22 электрозаправки. 20 станций работают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еще 2 –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Узнать месторасположение комплексов можно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энергетики. Там доступна онлайн-карта электрических заправок. С помощью сервиса пользователи могут увидеть действующие зарядные станции, а такж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места под их установку. Информация о комплексах регулярно обновляется.

Владельцы электрокаров отмечают не только отсутствие вредных выбросов, но и существенную экономию на топлив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арифа 100 километров пути обходятся водителю в 130-230 рублей. Экономия в сравнении с авто, работающем на бензине – в 3-5 раз. Кроме того, на островах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таких машин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снижен на 50 процентов. Сейчас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о полной отмене этих платежей.

Отметим, сейча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221 электрокар и 661 гибридный автомобиль.

Угроз для населения в связи со сходом породы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нет

Об этом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долож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нтрольных и надзорных органов, участвующих в мониторинге ситуации. 19 июл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 специальное совещание по вопросу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хода породы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куратуры, Ростехнадзора и ряда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По оцен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задача сейчас – сооруди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 сжатые сроки обводной канал для реки Желт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около 500 метров. Это позволит избежать накопления воды в месте схода породы.

– Мы получили четкий ответ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я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и», что эти работы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20 июля.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лностью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пропуска воды.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 следить за уровнем мутности в реке, он не должен превышать допустимых значений. У людей не должно быть неприятностей.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жители получали каче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по водоснабжению,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ующих месяцев канал будут углублять, чтобы постепенно увеличивать сток и остановить подмывание сошедшей породы. Эту работу должны выполнить к октябрю. Вместе с тем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еще один технический водоотводной канал,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й для улавливания дождевых и талых вод.

– Идет оценка нанесенного ущерба. Уже ясно, что ущерба почвам нет, поскольку сошедшая порода – это грунт, который предназначался для рекультивации в будущем. План рекультивации массива сейчас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В будущем запланированы работы по посеву трав,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и» Андрей Мотовилов.

Для кардинального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обходим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нженерные реше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одготовить документацию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работ к ноябрю.

Напомним, в ночь на 10 июля 2021 года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озле склада временного хранения Солнцевского угольного разреза в долину реки Желтая сошла порода. Пострадавших нет. Причины произошедшего устанавливает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ая комиссия, проводит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 Руководство разреза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ступило к аварийно-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В связи с ликвидацией последствий схода породы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недопущени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ЧС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веден режим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обеспечи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лечения детей с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ей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работу педиатр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где лечение от ковида сейчас проходят 13 дет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ывал в каждой палате и поинтересовался самочувствием пациентов и условиями размещения.

– Я заболела уже после ребенка. У меня диагностировали пневмонию, у дочери – ковид. Сейчас лечимся вместе. Чувствуем себя нормально. Отношение персонала отличное. Но, конечно, хотим домой. Думаю, скоро выпишут, – рассказала Ольг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данным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не был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детей с ковидом. В этом году, с появлением новых штаммов, в зоне риска оказались даже груднички. В педиатрическом отделении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на лечении находятся 13 детей, большинство – старше 9 лет, но есть и четверо малышей.

– Сейчас сделали обход. У всех пациентов стаби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Тяжелых нет, у всех средняя степень тяжести и легкая. Детский госпиталь открыт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Мы с таким диагнозом у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сталкиваемся впервые, поэтому только нарабатываем опыт, – рассказал дежурный врач-педиатр Андрей Тен.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говорил с медиками об обеспечении учреждения медикаментам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средствам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защиты. Медики сообщили, что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поступает в госпиталь без сбоев.

– Забота о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это приоритет в рабо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Лично убедился, что в этом госпитале обеспечены хорошие условия для лечения. Всем желаем здоровь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информ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регион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 необходимыми для леч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лек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шен вопрос о бесперебойных поставках кислорода, который требуется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ппаратов ИВЛ.

Пять новых пожарных машин поступили на вооруж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огнеборцев

Автомобили приобретены на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пожарные части сел Троицкое, Чехов и Новиково, а также в долинский и невелицкий отряды.

– Мы регулярно пополняем спецпарк пожарных частей. Сейчас это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поскольку в половине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из-за высоких температур объявлена высокая пожарная опасность.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ика наряду с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 это то, ч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обходимо огнеборцам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ч,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е автоцистерны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доставки к месту пожара боевого расчета, пожар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вооружения, запаса воды и пенообразователя. Машины могут эксплуатироваться в районах умеренного климата с годовым перепадом температур в пределах от -45°С до + 40°С по дорогам всех видов и бездорожь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втомобилями предыду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этих - цистерны и бак из пластика, которые не подвержены коррозии. Кроме того, четыре из пяти машин оборудованы электрогидравлическими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которые по свои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на порядок превосходят предыдущее поколение.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получили новенький «Урал Next» – замечательная машина, отлично себя проявила за время эксплуатации. Теперь вот обновленные автоцистерны. Очень приятное чувство, всегда приятно ездить на новой технике, – рассказал Евгений Ольчедай, водитель пожарной части № 52.

Отмети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оглик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ов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высокая пожарная опасность. В связи с установившимся 4 классом пожарной опас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 5 июля действует «особый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й режим».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лесного пожара стоит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сообщать информацию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диспетчерскую службу по телефону 8(4242)73-55-16 или по единому номеру лесной охраны: 8 800-100-94-00.

Более 1000 мест в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оздаду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2021 году

Информация о доступности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была озвучена 12 июля минис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ей Киктевой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анализу выполнения ключ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членов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2021 года более 30 тысяч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2 месяцев до 8 лет были обеспечены дошко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м удалось создать 199 мест совместно с частным сектором. В следующем полугодии стоит задача ввести 826 мест. Это 2 детских сада в Новотроицком и Дальнем, а также 336 мест в частном сектор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 итогам года более 99 процентов детей будут охвачены дошко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что выш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го значения,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оординатор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репкая семья» Светлана Бетнарская считает, что введение новых мест в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большое благо для островитян.

– Это помощь семьям. У мамы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доход, иметь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чтобы заниматься любимым делом, спортом, творчеством. Надеюсь,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и далее будут уделять этому вопросу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 отметила Светлана Бетнарская.

Кампания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отдыха и оздоровления дет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дет с опережением плана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уже отдохнули 28 тысяч детей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при плановом показателе в 24 тысячи. Об этом 12 июля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выполнению ключевых показателе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членов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В этом году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позволит направить 600 ребят в лагеря, расположенн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Еще 700 детей в течение года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е детские центры «Океан», «Орленок», «Сме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тский центр «Артек». Кроме того, нам удалось открыть палаточный лагерь, где отдых и оздоровление получит 500 человек, – пояснила министр. – В целом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программу будет вовлечено более 57 тысяч дет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целей из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525,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Мама ученик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 21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алина Климова считает, что летние лагеря –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ебенку отдохнуть, набраться сил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 Для меня важно, что мой ребенок летом не сидит дома.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родители работают, он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общается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узнает новое. Дочь уже вторую смену посещает площадку при школе. Ей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Ребята занимают различными играми, экскурсиями. Программа насыщенная и интересная. Хорошо, что в области заботятся о летней занятости детей, – отметила Галина Климо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기장군, 관내 거주 사할린 한인 지원책 마련

오는 9월부터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및 쉼터 설치

기장군은 관내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월 5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내 사할린 한인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정관 휴먼시아 1단지에 사할린 한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할린 한인은 일제 말기 대부분 징용노동자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종전 후 일본정부의 일본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동포들이다.

종전 당시 약 4만3000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했고 2017년 말에는 2만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700여 명이 1세대 한인이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추진해 현재 기장군에는 106명의 사할린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기장군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5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기장군은 생활안정 지원, 사할린주민 쉼터 설치와 더불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대부분 고령인 사할린 한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쉼터 조성을 통해 지역내 사할린 한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장=환경일보]

제천시자원봉사센터, 삼계탕 나눔 행사 실시

지역거주 사할린 동포와 장애인 대상 진행

충북 제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성진)는 지난 20일 중복 맞이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삼계탕 나눔 행사에는 제천사랑봉사회(회장 윤원기)에서 손수 닭을 손질하고 각종 약초로 우려낸 육수로 조리한 삼계탕을 제천 영천동 강저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29세대와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원 60세대, 농아인 협회 회원 120세대에 각각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사할린 동포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대한적십자사회 제천시구협의회 회원들 10여명이 강저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를 찾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배달 봉사에 참여했으며 이상천 제천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삼계탕을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성진 센터장은"중복을 맞아 자원봉사자 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는 자원봉사센터



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국제뉴스)

재외동포재단, 남아공 폭동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사회에 기본 생필품 구입비 긴급지원

재외동포재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폭동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줄루나탈 (더반) 한인회에 기본 생필품 구입비용을 긴급 지원하였다.

지난 7월 8일 제이콥 주마 前 남아공 대통령의 수감으로 촉발된 폭동사태의 중심지인 더반 지역의 동포사회는 10여 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약탈 및 방화 피해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형마트와 물류창고가 집중적으로 약탈당해 물류기능이 마비되고 기본적인 외출조차 불가능해지자, 더반 한인회는 체류 우리 동포들에게 기본 생필품을 공급하고자 긴급 구호사업을 신청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남아공 폭동사태로 동포사회의 안전이 지속 위협받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селе Чапаево закрыли проблему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17 июля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торжественно вручили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жителям нового пятиэтажного дома. Его построили на улице Центральной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Новосёлами стали 40 семей.

—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этим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событием. Пусть в вашем доме всегда царят уют и благополучие, — обратился к новосёлам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сейчас мы активно строим жильё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Чтобы все семь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аварийном жилфонде,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новое жильё.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была рассчитана до 2017 года, уже завершена и сформирована новая на пять лет — на 641 тысячу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этом году мы планируем расселить 129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 3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имволическую красную ленту вместе с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ром разрезали первый вице-мэр,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Яна Кирьянова,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ООО «Восток-ДСМ» Иван Антосиив и шести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Чапаево Алиса Бирюкова.

— Сегодня волнительный, долгожданный и торжественный день. Построен новый дом с просторными, красивыми квартирами. Подрядчик приложил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 всегда с радостью возвращались домой. Празднуйте новоселье! Обживайтесь! Создавайте уют! Растите детей и внуков! Живите долго и счастливо в своих новых квартирах, — поздравила новоселов Яна Кирьяно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дома в селе началось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возвед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пятиэтажки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ушло меньше года. На выходе — 30 двухкомнатных и 10 тре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уютный двор, детская и спортивная площадки возле дома.

— Приложили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дом получился красивым, ярким, с большими и теплыми квартирами. Учли не только эстетический фактор, но и предусмотрели условия для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 в доме есть пандус,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ООО «Восток-ДСМ» Иван Антосиив.

Жители Чапаево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ли комфорт новых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реди переселенцев — Иван Стародубов, который живет в селе с восьми лет и с 2017 года находился в очереди на получение квартиры.

— До этого жил в доме барачного типа. Так никаких удобств, а здесь, конечно, красота! Хорошее напольное покрытие, удобн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комнат, застекленный балкон. Туалет и ванная комната в доме. Печку топить не нужно. Всегда сухо и тепло! — поделился мужчина.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ят жители еще нескольких дом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ногоэтажек по улицам Гоголя и Калинина в Корсакове, а также дома в селе Озерско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не снижать темпы работ во дворах

Нуждающимися в текущем ремонт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знаны более 85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Заасфальтировать предстоит около 6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олотна. Как выполняются рабо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рил в ход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субботнего объезда.

— Мы видим, что набраны высокие темпы работ.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дворы, которые не подлежат капиталь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 сжатые сроки.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справившиеся с текущим ремонтом до 1 августа, получают субсид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сле этого срока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 работу за свои средств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информации министра ЖКХ региона Наталии Курпиной,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дворов уже в разгаре в половин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ласти. Остальные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ам в понедельник.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96 дворов.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работ предстоит выполни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ланах преобразить 526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 С управля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заключено порядка 20 договоров.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выполнен в 65 дворах, новый асфальт положили на площади около 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работ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10 бригад, — рассказал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андр Гринберг.

— Конечно, результаты видны. Наш двор был разбит долгие годы. Теперь приятно и ехать, и идти по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Бригада рабочих очень оперативно справилась с задачей, мы довольны,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дома № 131 по улице Пушкина Михаил.

Адресный перечень дворов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которых будет проведен ремонт, размещен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акту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с учетом корректировок и дополнений регулярно публикуется в СМИ,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Отметим,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списков для ремонта оказали волонтер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яют свои обращения на портал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 всему региону их поступило около 980.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усилить меры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словам губернатора, сейчас, когда на островах установилась жаркая и сухая погода, нельзя ослаблять мониторинг пожарн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выполнение этой работы должны взять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а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звал руководство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ально строго следить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м норм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айонах.

— Следует сдела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чтобы избежать трудностей во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сезона. Техника и специалисты должны находиться в режиме постоя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ужно уделить уборке стихийных свалок и сухой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информированию людей о правилах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рирод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мониторинг пожароопасных мест региона проводится два раза в день. При этом возгорания устраняютс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сего с начала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сезона на острова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5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Общая площадь, пройденная огнем — более 59 гектаров. Из них 14,6 гектара — лесная.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причин возгораний является человеческий фактор.

В связи с повышением класса пожарной опасности в лесах по условиям погоды и ухудшением пожароопасной обстанов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водится режим ограничения пребывания людей в лесах.

Отметим,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сезона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запрещается разводить костры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открытый огонь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пищи вне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ых и оборудованных для этого мест.

Мусор, траву, листву, а также другие отходы и материалы разрешено сжигать только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местах и способами, которые установили органы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Особ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озложена на владельцев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и территорий СНТ. Они обязаны проводить своевременную уборку мусора, сухой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и покос травы. Запрещается устраивать свалки горючих отходов.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ожара 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гня, необходимо соблюда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Нельзя разводить костры ближе 50 метров от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сжигать траву и мусор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олях, захламлять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е разрывы и прилегающую к строениям территорию, перегораживать дороги и проезды к объектам и источникам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случае установления особого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режим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ткрытого огня строго запрещено.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ози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и уголо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Отметим, при пожаре необходимо звонить по единому номеру вызова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 112.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